

석유 수급불안 심화 고유가 재도래

한은,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증가율 1.6% ... 신에너지 투자확대 절실

과거 10년간 석유 수요는 연평균 1.6% 증가해온 반면 공급은 1.5% 증가하는데 그쳐 수급불균형 확대에 따른 고유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 석유 시장은 2003년 말까지 누적생산량 9245억배럴과 확인매장량 1조1477억배럴의 합계인 2조722억배럴을 궁극적인 채굴가능 매장량으로 간주하게 되면 2007년 석유 생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07년 이후에도 석유 소비가 최소한 연평균 1.6%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석유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돼 고유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2004년에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고성장,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 등으로 석유 수요가 3.2% 늘어나고 2005년에도 2.2% 증가하는 등 10년간 평균치인 1.6%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에는 1일 평균 석유 소비량이 2001년 기준으로 33.9-83.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석유 공급은 과거 10년간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석유 생산의 패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정점을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종 모양을 보여 공급부족이 우려된다고 풀이했다.

미국이 석유생산의 정점을 지난 1971년에 석유 파동을 겪었으며 리비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도 생산정점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은 1조1477억배럴로 앞으로 41년 동안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며 확인매장량을 기준으로 OPEC 회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산유국은 2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른 테러위협, 사우디아라비아와 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등 산유국의 정정불안, 러시아 유코스 사태 등으로 석유 공급부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앞으로도 정제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정유시설에 대한 테러, 파업, 화재 등에 따른 공급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1.6% 늘어나 2001년 기준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16조달러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석유 공급불안이 재개되면 천연가스, 석탄 등 여타 에너지 가격도 동반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석유 공급부족에 대비해 비일반 석유증산을 위한 투자 뿐만 아니라 가스 및 석탄의 석유화 등 첨단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부문에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9/14>